

통일대불이시여! 새아침 민족의 염원 '통일' 을 발원하옵시다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해이다. 우리 산하대지는 반만년의 시간동안 한 뿌리, 한 몸으로 살아왔다. 갈등과 반목을 화합과 소통으로 풀어내는 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 한국불교 역시 민족 통일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오늘도 각처의 통일대불이 자비롭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변혁의 새 아침을 열어가자. 사진 왼쪽부터 속초 신흥사, 대구 동화사, 파주 약천사 통일대불. 신성민 기자

커버스토리

2015 한국불교 변혁의 새 길을 열자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해인만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불교는 중단적 갈등부터 스님의 범계 행위까지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은 100인이 모이는 대중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만큼 변화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공의는 모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회적으로는 지난해 남북 갈등과 일본 우경화에 따른 관계 악화로 흉역을 앓았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갈등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한국불교 쇠신을 위해서는

한국불교 사부대중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승 스님은 “내부적 변화가 없다면 한국불교계는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저하되고 쇠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각 종단 조직과 구성원들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내부로부터 의식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국민과 사회에 정법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1945년생 해방둥이인 법산 스님은 “정화 이후 조계종이 얼마만큼 수행중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또 스님들 각자가 수행자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불교와 진정한 쇠신과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고 사부대중들은 말했다. 깨달음을 얻고 이를 통해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산 스님은 “유식학의 목적은 전식득지(轉識得智)입니다. 마음의 깨달음, 참회의 깨달음으로 마음의 업식인 탐진치 삼독을 밝음, 보시와 지혜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의 세계를 반조하고 자

신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문사 승가대학 강사 일진 스님도 “자성과 쇠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자 스스로 자성하고 쇠신하지 않으면 자성과 쇠신은 되지 않는다”면서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정화하며 자성과 쇠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 一心의 리더십 필요

분단 70년은 한국 사회에는 큰 아픔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바람과 원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통일연구원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추구하는 통일의 목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이다. 이러한 목표를 국민 의지로 확인하여 통일의 동력을 살려내고 국민의 원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통일의 첫 출발점이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 교수는 “우리는 2015년

을 국민의 통일 의지와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일심(一心)의 리더십을 덕목으로 꼽았다.

정 교수는 “통일이라는 국민의 공통 염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원효의 일심(一心)사상은 불교사상이지만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신라의 3국통일과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이은 세 번째의 통일이 될 남북한의 통일도 이러한 일심의 정신을 살린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불교, 한일 갈등 해결 나서야

현재 세계 패러다임은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지만, 일본만은 한국의 독도, 중국의 센카쿠 열도 등을 가지고 영토 분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베 정권 재집권하면서 우경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사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한중

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통해 상호 교류와 우호 증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18~20일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세계평화선언과 더불어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 철책선을 도보 행진하는 행사도 가졌다. 하지만 이 같은 대회가 선언적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제기된 주장이 2010년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나온 〈한중일 불교사〉 공동 집필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수차례 본지와 인터뷰에서 연거푸 불교문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성숙된 정경을 표출하는 것이 한국 불교의 역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종걸 스님은 “동북아 3국을 통합하는 힘은 ‘불류(佛流)’에 있으며 ‘동북아 불류시대’를 위해 한중일 국이 매진해야 한다”며 “이제는 교류의 양이 아닌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前 종정 법전 대종사 원적

구랍 23일 법랍 73세, 세납 90세... 27일 영결식

조계종 11, 12대 종정이자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법전 대종사가 구랍 23일 오전 대구 도림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73세, 세납 90세. 스님의 분향소는 방장으로 주석했던 해인사 보경당과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되며 영결식은 해인사에서 구랍 27일 봉행했으며, 다비는 영결식 후 해인사 연화대에서 이뤄졌다.

〈영결식 차주 상보〉
조계사와 해인사의 분향소에는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 온 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12월 24일 조계사 분향소를 찾아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임종계

山色水聲演實相
曼求東西西來意
若人問我西來意
巖前石女抱兒眠

산빛과 물소리가 그대로
실상을 펼친 것인데
부질없이 사방으로
서래의를 구하려 하는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서래의를 묻는다면
바위 앞에 석녀가 아이를
안고 재우고 있구나

이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김성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정관계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조계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해인사 분향소에도 스님의 입적 소식을 접한 조계종 원로의원, 교구본사 주지와 사회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3일 오후 해인사에 조화를 보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1925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법전 스님은 1939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호 스님을 계사로 설제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44년 장성 백양사 강원 대교과정을 마쳤으며, 1948년 백양사에

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및 보살계를 수지했다.

법전 스님의 초재는 해인사, 2재는 해인사 고불암에서 3재부터 5재는 대구 도림사에서 6재는 김천 수도암에서 7재는 해인사에서 봉행된다. 신성민 기자

대종사 행장 A3면

2015년 신년특집호 - 48면 발행

A 특집 · 분단 70년 '2015 변혁의 새길을 열자'	5
특집 · 한국불교 쇠신의길 해방둥이 법산 스님 희망인터뷰	10
새연재 · 연중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	11
새연재 · 현대불교인문	15
B 특집 · 공유사회와 불교	1·2
특집 · 절로써 절언니	3
특집 · 새해, 새몸, 새마음	5·6
특집 · 불교와 양	12
새연재 ·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15
특집 · 양미불자	19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謹賀新年

중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새해를 열겠습니다

종정 진계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중앙총회의의장	성문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일면	포교원장	지원